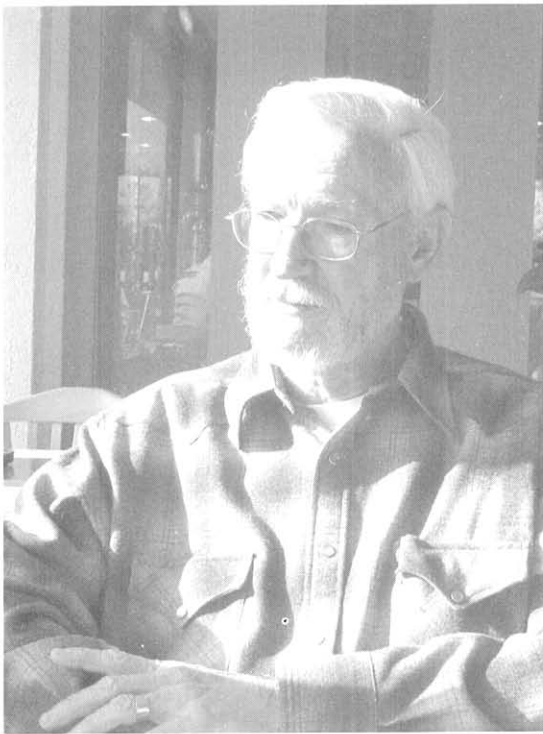


## 한국 민주화운동의 벗 패리스 하비 목사



수은주가 뚝 떨어진 늦가을 아침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패리스 하비 목사(67)를 만났다. 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해외민주인사초청 및 민주화유적지 탐방사업’에 초청되어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머물고 있었다.

하비 목사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노동자, 도시 빈민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고 민청학련 사건으로 강제추방을 당하기도 한, 한국의 민주화 발전을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지기(知己)이다.

한 사람의 미국인 목사였던 그가 한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결혼과 함께였다.

“1957년 22살 때 연합감리교 연합기독교학생연합의 일로 3년간 일본 오키나와에 갔었다. 오키나와로 파견되기 전에 1954년 여름 두 달 동안 파견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기간에 제인을 만났다. 그녀와 약혼을 하고 그녀는 한국으로 나는 일본으로 파견이 되었고,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1959년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제인과의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그는 1959년 서울 태화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가 종교적 임무를 품고 첫 파견된 오키나와, 그곳은 그를 정치사회적으로 각성시킨다.

“오키나와는 미군이 주둔해있어 일본반환 문제 등이 큰 이슈였다. 오키나와를 지켜보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게 된 셈이다.”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 주었고, 오키나와 빈민지역의 가난, 노동자들의 참담한 삶과 그들의 처절한 노동조건을 목격한 뒤 하비목사는 인간의 경제적 조건이 갖는 문제와 경제정의의 절박성에 대해 눈 뜰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각성된 그의 활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당시 한국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노조

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벌여나갔다.

“1970년대에 연합감리교 세계선교회에서 학생운동을 담당하는 간사생활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운동과 관련된 이들이었다. 그들을 통해 한국의 노동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75년 다시 돌아간 일본에서 아시아 노동운동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다. 아시아 각국에서 국가안보문제가 노동탄압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79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북미주한국인권연합’에서 일하며 미국의 인권법률들이 노동자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고, 이들 법률을 개선해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의 결성 당시도 역시 그의 도움이 함께 했다.

“전노협 결성당시는 내가 미국에 있던 때라 미국 내에서 그들을 지원, 협조하였다. 주로 한국 노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선전물을 제작·출판하였고, 미국 내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구속자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 당시 AFLCIO(전미노동자연합)이 한국 노동운동상황 개선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는 노동탄압을 뚫고 자리 잡은 민주노총이야말로 독재가 민주주의 힘을 누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그는 1979년 미국에서 ‘한국인권을 위한 교회연합’을 꾸리고 11년간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한국 인권소식을 담은 간행물과 인권침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80년대 한국의 인권탄압을 세계에 고발하고 군부독재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 미 의원들을 상대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도록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참석하여 한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기도 하였다.

미국 다국적 기업의 제3세계 노동자 착취를 고발하는 등 저개발국가 노동자의 인권신장은 그에게

소중한 사명인 듯하다. 96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제3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 잘못된 미국정책과 관련해 늘 커다란 책임감과 도덕적 부채감을 지녀왔다고 했다. 군사독재 아래 있던 당시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잘못된 정책의



한국민주화운동 사료전시회를 관람중인 해비목사부부

폐해를 바로 잡는 일, 한국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86년 설립하여 그가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국제노동권리기금’ 역시 제3세계의 인권을 위한 활동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단단한 신념이 그를 노동운동 지원을 위해 쉽없이 제3세계를 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것이다.

80년 11월 계엄군법회의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은 감형을 거쳐 82년 석방 후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망명생활을 정리하고 1985년 귀국하는 김대중의 신변을 걱정하며 함께 동행한 외국인 목사가 바로 하비였다.

그와 김대중 대통령의 인연을 물었다.

“이희호 여사와 내 아내 제인은 테네시에서 대학을 다닐 때 만난 동기로 오랜 친구이다. 제인은 나보다 이희호 여사를 더 먼저 만난 셈이다. 1985년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 정치망명 왔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일하였고 85년 한국 입국 시 같은 비행기로 동행하였다. 일행 앞쪽에 있었던 덕분에 많은 카메라 세례도 받고 경찰들에게 맞기도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97년 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장에 해외귀빈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13년 인 1989년 그가 ‘인권조사단’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언론은 그를 ‘빨갱이목사’로 지탄하고

나섰다. 당시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1989년 방미 중이던 노태우 대통령은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 중 ‘한국에는 정치범이 한 명도 없다’며 ‘원한다면 외국 인권단체들의 직접 확인도 허락하겠다’고 발언한다. 이에 케네디 인권재단이 주관이 되어 재단의 사무총장이자 로버트 케네디의 딸인 케리 케네디를 단장으로 하비 목사, 조지 블로 변호사 등 일행이 ‘사실 확인’ 차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입국은 한국 언론에서 맹비난을 받는다. 비난의 초점은 ‘빨갱이목사’가 주도하는 인권조

사단의 ‘내정간섭’이었다. 하비 목사 숙소 건너편에는 “빨갱이 목사 하비는 즉시 한국을 떠나라”는 현수막이 걸릴 정도였다.

그가 한국 언론의 비난세례를 받게 된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70,80년대 한국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한결같은 그의 투쟁뿐만 아니라, 당시 노태우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로 미 상하원 의원 전원에게 노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을 것이다.

언론의 우악스런 비난 속에 조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갔던 그는 숙소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민주인사초청 환영회에 참석,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

그의 한국을 위한 오랜 활동 속에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였을까. 한국의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사건으로 그는 광주학살을 꼽았다.

5.18과 관련해서

는 광주를 탈출해 정치망명을 한 윤한봉씨와의 드라마 같은 인연이 유명하다.

“1980년 9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존 김이라는 의사였는데, 이름을 알리지 않은 누군가가 광주를 탈출하여 밀항 중이며 1주일 후에 시애틀에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고 나는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전화로 알려준 그 이름의 배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처음에는 그런 이름의 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더 알아보니 새로 등록된 배중에 그

배가 있었고 바로 그날 밤 도착 예정이었다.

나는 대니얼 김(김동건) 부부에게 알려 이들 부부가 그 배로 가게 하였고, 또 한편 케네디 상원의원 이민담당보좌관과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해 정치망명자가 있음을 알렸다.

김동건 부부는 배위에서 예배 일행처럼 꾸미고,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표시로 '배 위에 성경을 든 사람'의 모습으로 기다렸으나 나타나다는 광주 탈출자는 여섯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나서서 정치망명자가 있는지를 물어보며 다녔어도 찾을 수 없자 결국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 시간쯤 흐른 뒤였다.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광주에서 탈출한 윤한봉씨였다.

다음날 출입국관리소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6일 정도를 김씨부부와 숨어있도록 하였다. 그 기간은 그를 태워다 준 배가 안전하게 떠날 때까지 기간으로 그를 도와준 이가 누군지, 어떤 배를 타고 왔는지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케네디 상원의원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긴 했지만 정치 망명허락을 확신할 수 없었고 보다 더 안전을 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2년전 5.18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20년 사이의 변화를 그는 어떻게 느낄까. 십여년 까지만 해도 빨갱이 목사였던 그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귀빈으로 초청되고, 폭동으로 매도되었던 5.18항쟁

이 이제 민주혁명이 되어 대대적인 기념식을 치르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그의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1998년 한겨레에 특별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대들의 분투는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다고, 민주화라는 지향점이 흐려지고 주류 속에 휩쓸린다면 그대들의 신념과 희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에게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해 묻자 그는 길지 않은 몇 문장을 말하면서 결국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한국의 70-80년대 그 치열한 투쟁정신으로 2000년대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 긴장상태로 계속 살 수 없고 안정된 상태를 찾아야 될 일이지만, 일어나야 할 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가장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일주일의 일정동안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부산민주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사료전시회에 참석해 연단에 선 그는 눈물을 쏟으며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더듬어 말했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눈물을 보인다. 한국의 치열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감동과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 그의 눈을 통해 나오고 있음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던, '일어나야 할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 되길 바라는 그의 바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소망하는 모습일 것이다.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 故 윤상원 묘에 참배하였다